

### 광주일보

제17522호 2006년 8월 10일 목요일

주가	환율	금리
+3.83 1,314.93 (코스피지수)	-4.20 959.50원 (원/달러)	-0.01 4.75%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52.32	(+ 5.84)
다우(8일)	11,173.59	(-45.79)
나스닥(8일)	2,060.85	(-11.65)
닛케이	15,656.59	(+ 191.93)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5.04엔	(-0.29)
유로 달러 환율	1.2810달러	(-0.07)
3년만기 회사채	5.07%	(-0.01)
콜금리	4.24%	(-0.01)

### 생애 첫 차 구입 빨라진다

지난 6월, 10대 신규등록 전체 3.4%

생애 첫 차를 구입하는 시기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연령별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10대가 등록한 승용차 대수는 총 16만8천300대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3년 6월말 현재 5만4천 600대(0.54%)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2004년 6월말 현재 7만6천400대(0.73%), 2005년 6월말 현재 10만8천900대(1.00%)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한달간 10대가 신규 등록한 승용차는 총 2천561대로, 전체의 3.36%를 차지해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대에 승용차 구입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 20대의 자동차 구매력이 40대를 능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6월 한달간 20대의 신규 등록 비중은 19.6%, 30대 30.1%, 40대 22.1%의 뒤를 이었으나, 3년이 지난 지난 6월 한달간 20대의 신규 등록 비중은 22.4%, 40대(18.2%)를 넘어선 것은 물론 30대(24.0%)에 근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통상 대학 입학시나 회사에 취직할 때 생애 첫 차를 사기 마련”이라며 “점차 ‘엔트리 카’를 소유하는 시점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 전남상권 분석 2

목포 원도심 상권은 행정구역상 무안동과 남양동을 중심으로 만호동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흔히 목포시내 상권으로 불리는 곳으로 개항 109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 20년 쇠락 벗고 “옛명성 되찾자” 꿈틀

‘차없는 거리’ 등 전남 서남권 ‘제1 상권’ 명맥 유지

중심가 빈점포 200여개…부두쪽은 유동인구 늘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든이 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말 현재 원도심 상권내 빈 점포는 45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심가인 무안동의 경우 슈퍼·꽃집·문구점 등 빈 상가만 111개에 달했고 문을 닫은 음식점도 78곳이나 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원도심 상권의 대부분을 도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원도심에 뉴타운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상권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원도심 상권은 1897년 개항(開港) 이후 100여 년동안 목포의 단일상권으로 부흥을 누려왔다. 한때 국내 3대 항 6대 도시로까지 성장한 목포시의 위상에 걸맞게 1960년대까지 최전성기를 누렸고 25만4천여명으로 목포시 인구가 최고치에 달한 80년대까지도 전국 어디에도 뛰어나고 있는 상권으로 활력이 넘쳤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하당신도심 조성으로 도심

거리’가 상권의 중심이다.

광주의 충장로 상권과 성격이 비슷해 주 고객층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다 보니 이를 겨냥한 캐주얼 및 스포츠 의류점과 신발 및 악세서리,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성업중이다. 최근 1년 사이에는 의류점과 패스트푸드점은 감소하는 반면 저가 화장품 가게나 이동통신 대리점, 김밥점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10·20대 유동인구 많아 의류점 성업

최근 중심상권내 15평짜리 압세서리 가게가 보증금 5천만원에 월 500만원에 계약이 이뤄지는 등 평당 임대가(1층 기준)가 3천60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8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리복 목포점’ 경상수대표는 “올들어 매출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가게 월세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중심

지는 평당 임대가가 3천만원을 넘는다”며 “이 때 문에 의류업체들이 목포에 점포를 하니깐 낼 경우 하당보다는 이곳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부두·구도심=일명 선창상권으로 건어물상, 선구점, 횟집 등 300여개 상점이 영업중이다. 대부분 상가들이 40여년이상된 노후건물로 상권은 상당히 침체됐지만 최근 국제여객선터미널 신축과 상해직항으로 새취항 등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일부 상가들은 호황을 맞고 있다. 국제여객선터미널 주변에 국제항만물류센터가 건설되면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호남동상권=정명여고와 목포여고를 끼고 있어 문구점, 분식점, PC방 등이 많다. 이들 학교 주변으로는 관련 업종이 그런대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구 종양공설시장에서 목포여고사에 밀집된 재래상가들은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 구 종양공설시장 재건축 문제가 지연되면서 상권 위축이 급격히 진행된 곳으로 향후 상권도 공설시장 재건축 여부에 달려있다.

/목포=장필수기자 bungy@임영춘기자 lyc@

\*다음 상권분석은 여수교동입니다.

### ■ 美 금리 동결… 국내 금융시장 여파는?

### 취업자 증가 3개월째 제자리

7월 26만명 늘어…정부 일자리 35만개 창출 힘들듯

취업자수 증가가 3개월 연속 20만명 대에 그쳐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9월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344만7천명으로 1년전에 비해 26만3천명(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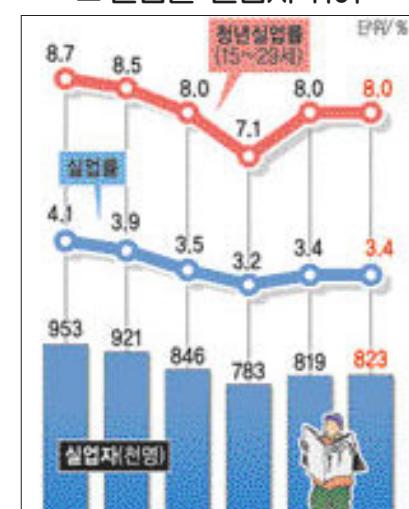
6월(25만5천명)에 비해선 소폭 늘었지만 5월(28만6천명) 이후 3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이 20만명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월 평균 실적도 30만4천명 수준으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35만명을 크게 밟돌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3만8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8만7천명)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5만3천명), 농림어업(-5만7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3만4천명), 건설업(-1만9천명)은 감소했다.

연령별 취업자는 50대(22만명)와 60세이상(10만9천명)이 작년 동월 대비 6.0%와 4.4% 증가한 데 비해 40대(9만2

### ■ 실업률·실업자 추이



천명)와 30대(3만명)는 증가율이 1.5%와 0.5%에 그쳤다. 반면 20대(15만2천명)와 21대(20만9천명)는 3.5%와 11.6% 감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접대비 실명제 약발 끝났나

지난해 3조원…전년보다 26% 늘어

접대비 실명제 실시 이후 급감했던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이 지난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9일 한국은행이 6만6천513개 기업을 모집단으로 작성한 ‘2005년 기업경영분석’에서 전 산업의 접대비 지출액은 2조9천59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5.6%나 급증했다.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 도입과 함께 2004년 전 산업의 접대비 지출액이 2조3천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 급감한 후 1년만에 다시 급반등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체 기업의 접대비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 15.2%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또 전 산업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은 2003년 0.23%에서 2004년 0.17%로 떨어졌다가 지난해는 0.18%로 다시 상승했다.

2만4천691개 제조업체의 접대비 지출액은 2003년 1조2천46억원에서 2004년 1조1천280억원으로 6.5%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1조3천315억원으로 18.0%나 급증했다. 지난해 제조업의 접대비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 9.1%를 크게 웃돌았다.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도 2002년 0.19%, 2003년 0.18%, 2004년 0.15% 등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는 0.16%로 다시 올라갔다. /연합뉴스

### 韓銀 오늘 콜금리 결정에 직접 영향

#### 경기둔화 움직임속 외자 유입엔 긍정적

는 상황에서 FRB의 정책당국자들은 한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멈추고 향후 경제동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금리 동결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금융위기의 콜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둔화 기미가 점차 확연해지는 가운데 주요 국가인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 긴축 기조를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의주시 할 부분이다.

미 연준은 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5.25%로 유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 따라 외화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통상 미국의 금리 동결은 한국 입장에서 콜금리 동결 요인이 된다. 양국의 금

리차가 커지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금리 인상 요인이 되지만 동결 시에는 이같은 압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금리 인상을 노리던 한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골치 아픈 대내 혼란이 쌓인 가운데 대외 요인까지 동결 요인을 추가한 셈이 됐다.

미국의 금리 동결로 외환시장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동결은 통상 전세계적인 달러화 약세로 연결되면서 안정국면을 찾아가고 있는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 할 부분이다. 미 연준은 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5.25%로 유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 따라 외화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통상 미국의 금리 동결은 한국 입장에서 콜금리 동결 요인이 된다. 양국의 금

/연합뉴스

### 하이트 맥주 신선할때 마시세요

15일 출고분부터 음용권장 기간 표시

하이트 맥주(대표이사 윤종웅)는 음용 권장 기간 표시를 15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음용 권장 기한은 병맥주와 캔맥주는 제조일로부터 365일, 페트병 맥주는 180일까지다. 하이트 맥주는 이와 함께 제품 신선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신선도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제조 일 기준 1년 이상된 맥주를 최초 출시된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종태기자 jtlee@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G전자서비스주호남센터	[취업/교육비지원]Digital 기기제품 수리과정 교육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10-6190	
㈜한빛스텝스	2006년 대한회재 1기 광주 TM/M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376-1118	
㈜남일등	KT TM사원 및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236-3803	
㈜울리브나인	삼한지테마파크(주) 몰 운영장) 안내요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335-7008	
태정산업㈜	무역사무원(일본어능통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9440-1377	
㈜에이아이에스그룹	[광주신세계백화점] 판매 및 매장관리 사원	고졸/경력2년	1400~1600	08/14	02-461-1505
동성방문보호협회	2006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5	062-226-4904
㈜비미트	매장관리자 경력사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8/16	062-650-2205
㈜답양은천	[남양리조트] 분야별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5	061-380-5016
㈜크리운베이커리	중부영업부 호남팀 -제과제빵사(여)/판매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0	062-674-0855
㈜홍민통운	11톤 왕바디 운전기사	고졸/경력1년	2000~2200	08/20	02-2668-3303

(광주정보리아 512-6210 제공)

###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 상승폭 둔화